

맞이하기

- *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가장 힘들었던 일 한 가지와 가장 감사했던 일 한 가지를 나누어봅시다.
- * 지난 주 함께 기도한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나누어 봅시다.

말씀요약

- * 설교본문과 설교요약을 읽습니다. (bit.ly/31moim)

은혜 나누기

- * 말씀을 들으며 가장 와 닿았던 내용이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 * 말씀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 감사하게 된 것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 * 오늘 나눈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도전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예상되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말씀에 비추어 이번 겨울 선교에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 하나 됨을 지키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동체의 하나 됨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기

- * 이번 한 주 어떤 삶을 기대하십니까? 구체적인 기도제목 한 가지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 * 공동체를 위한 기도제목들을 공유하며 기도합시다.

1.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선언하시고, 그 평강이 제자 공동체 곧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 20:21)고 말씀하시며 교회를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 속으로 어떻게 보냄 받는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라는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말씀이 담긴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는 이 말씀의 몇 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시지만, 제자들은 세상에 남겨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보전하셔서,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니다(17:11). 여기서 교회의 ‘하나 됨’은 단순히 단결을 도모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하나 됨을 교회도 갖도록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하나 됨을 위해 기도하시는 이유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교회가 하나 됨을 지키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에, 세상이 교회를 미워합니다(17:14). 특별히 세상의 배후에서 활동하는 악은 교회의 분열을 일으켜서 하나 됨을 이루는 것에 실패하게 만듭니다(17:15). 그럼에도 예수님은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거나 하늘로 올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 속에서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됨을 드러내도록 기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아들 하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17:18). 그러므로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두신 것, 더 정확히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와 같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확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보냄받아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존재입니다.

2.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하나 됨을 위해 기도하신 것은 교회 자체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17:20). 아버지께서 교회를 부르시고 사랑하시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선교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교회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셔서 세상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도록 하십니다.

교회 공동체는 삼위 하나님을 알리고 증언하는 존재로 세상에 보냄받습니다. 그런데 이 파송과 사명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교회가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 됨은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 됨은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는 결과를 낳게 합니다(17:21).

무엇보다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됨은 사랑 안에서 나타납니다(17:23). 그러므로 교회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될 때, 세상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13:35).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러했습니다(행 2:42-47). 말씀과 교제와 기도로 세워져간 교회 공동체는 함께 거하며, 자기주장 없이 물질을 나누었습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사랑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그 결과 구원 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선교적 교회란 존재 자체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 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선교가 출발합니다. 교회의 사역은 느낄 수 있고, 일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하나 됨이라는 삼위 하나님의 본질, 곧 교회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